

장성군 적극행정으로 군민 행복 실현 '중점'

상무대 상생 급식 등 5건 사례 선정 (쥬더본코리아 협업 음식 개발 효도권 군차제 노인복지 서비스 농산물 개발 발골 품평회 개최

어르신 효도권 확대, 백종원 협업 등 장성군이 최근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군은 우수사례 5건에 안주하지 않고 군민 행복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사업들을 지속 발굴·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매년 상반기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담당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심사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적극행정 적격 여부, 중요도 및 난이도, 담당자의 업무 적극성 등 5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효도권 지원금 인상 및 사용자 확대 △쥬더본코리아와 함께하는 상무대 지역상생급식 △상습 침수지역 민원 해결 등 5건이 최종 선정됐다.

'효도권'은 장성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이다.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지난해까지는 65세 이상 주민에게 분기별 4만5000원, 연간 총 18만 원을 지급했다.

군은 올해부터 연간 사용액을 24만 원으로 33% 늘리는 한편 음식 구입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건강권'을 도입했다. 필요한 행정 절차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조속히 마치고 지난 4월부터 확대 지원 중이다.

백종원 대표의 (쥬더본코리아와 지역 외식업체, 청년 셰프들이 손잡고 '상무대 엠지(MZ)세대 장병 맞춤형 특식'을 제공한 사례도 우수 적극행정에 이름을 올렸다.

장성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품평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쥬더본코리아와 지역특화 음식 개발,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성군은 내년 3월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 개원을 준비

하고 있다. 장성을 넘어 전남의 음식문화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8년째 침수 피해를 겪어 온 북일면 신흥리 주민들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한 마을 배수로 설치 사업, 첨단3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0억 원 확보 등도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장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전국 시군구에 홍보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장성을 만들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영광군, 조림사업 대상지 신청 연중 접수 가능

영광군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2025년 조림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연중 접수 가능하며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나 대행 조림자가 조림 신청서와 함께 자부담금 납부확약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및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당해 사업량이 마감되면 익년에 조림을 실시한다.

조림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영광군에서는 2024년 조림사업으로 총 52ha에, 편백나무, 백합나무, 밤나무, 동백나무 등을 식재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사업비의 90%를 군에서 보조하고 10%는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며 군과 산주의 조림수종 협의를 통해 편백나무, 백합나무 등을 52ha 이상 조림할 계획이다.

조림사업을 마친 산림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조림 후 3~5년 이내인 조림지는 풀베기 및 덩굴 제거, 5~10년 된 조림지는 어린나무 가꾸기, 15년 이상인 조림지는 큰 나무 가꾸기 등 생육 기간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조림사업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조림사업으로 건강하고 우량한 산림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담양군, 31일까지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올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30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분은 9억 9000만원, 건물분은 21억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인 경우 전체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건물분은 2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6%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9억9000만 원으로 5% 증가했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주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고,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농산물 가공 기술 교육 장성군, 9월까지 10회

장성군이 16일부터 농업인회관 1층에서 농산물 가공·창업 희망자 대상 '농산물 가공 기술교육'을 시작했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교육은 △농식품 판매를 위한 인허가 절차 △식품 위생 및 안전교육 △에스엔에스(SNS) 활용 마케팅 △지역 농특산물 '밀키트' 상품화 기술 △현장 견학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1회씩 총 10회를 진행해 오는 9월 24일 교육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공 상품화 등 창업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데 유용한 교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농산물 가공 상품화 전문 교육을 통해 농업인이 '생산자'에서 '판매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곡성지역 초등생들이 '그림책으로 여는 섬진강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곡성군은 지난 6일과 13일 오치근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섬진강 그림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그림책으로 여는 섬진강 탐방' 프로그램

곡성군이 '그림책으로 여는 섬진강 탐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등학교와 가족 등 45명과 함께 10주 동안 섬진강 그림책 작가 4인의 강연과 탐방을 진행한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6일과 13일, 곡성어린이도서관에서 '길 위의 인문학'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오치근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섬진강 그림여행'을 진행했다.

오치근 작가는 딸 은별이와 함께 떠난 섬진강 여행에서 그린 그림을 엮어 그림책 '아빠랑 은별이랑 섬진강 그림여행'을 발간 책에는 섬진강 발원지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섬진강의 여러 사람들과 동물, 풍경을 담았다.

그림책에 담겨진 그림과 숨은 이야기, 작가가 경험하고 느낀 섬진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거대한 캔

버스에 다 함께 그림을 그려 섬진강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미리 직접 찍은 섬진강, 섬진강에 사는 생물, 그리고 싶은 꿈 등을 준비해 넓은 캔버스를 채워나갔다.

오치근 작가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우리 지역에 흐르는 섬진강에 얽힌 설화와 생태,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블랙베리 찰옥수수 본격 출하 함평군, 서울 대형마트 납품 등

함평군이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블랙베리 찰옥수수를 본격 출하한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을 만흥리 등 7농가 5ha 규모 재배 블랙베리 옥수수를 지난 13일 첫 수확을 시작으로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 출하하고 일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다.

블랙베리 찰옥수수는 일반 찰옥수수에 비해 찰기와 단맛이 강하며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관 및 눈 건강에도 좋은 기능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 소비 둔화와 가격 하락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블랙베리 찰옥수수가 함평 농가의 안정적 수입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올해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노지 기능성 옥수수 시범사업을 통해 종자재와 농자재, 재배기술 매뉴얼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등

장성군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지난 15일부터 받고 있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티어-1' 이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 본거지가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 규모로 군은 △5등급 87대 △4등급 134대 △건설기계 4대 총 22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5등급 차량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상한

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경우, 차량 말소 후 수시분과 지방세 등을 완납해야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8월 9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장성군 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공식 누리집 고시·공고 '2024년 2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